

아이들이 걸리는 감염병

아이들은 뱃속에서 엄마에게 받은 항체에 의해 생후 6개월까지 감염병에 잘 걸리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나면 항체가 감소하여 감염병에 걸리기 쉬워집니다.

여기서는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질병에 대해 설명합니다.

● 홍역

홍역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감염력이 매우 강해 홍역 면역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감염된 사람을 접하면 거의 100%의 사람이 감염됩니다.

공기 감염이 주요 감염 경로이지만, 환자의 기침이나 재채기에 포함된 바이러스를 흡입하는 것에 의한 '비말 감염' 및 바이러스가 묻은 손으로 입이나 코를 만지는 것에 의한 '접촉 감염'도 있습니다.

[증상]

약 10~12일간의 잠복기 후 38℃ 정도의 발열 및 감기 증상이 2~4일 지속되고 이후 39℃ 이상의 고열과 함께 발진이 출현합니다.

합병증으로 폐렴, 중이염, 드물게 뇌염, 실명 등이 있으며 폐렴이나 뇌염은 중증화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예방법]

유효한 예방법은 백신 접종입니다.

백신은 홍역과 풍진의 혼합 백신(MR 백신)으로 정기 접종 대상입니다.

1세 및 초등학교 입학 전 1년간, 총 2회 접종이 권장됩니다.

● 풍진

풍진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증상]

2~3주의 잠복기 후 발열하고 그 다음 날 무렵에 작고 붉은 발진이 얼굴에서 나타나기 시작해 단번에 전신으로 퍼집니다.

또한 귀 뒤나 뒤통수의 림프샘이 붓고 아플 수도 있습니다.

[예방법]

유효한 예방법은 백신 접종입니다.

MR 백신으로 정기 접종 대상입니다.

1세 및 초등학교 입학 전 1년간, 총 2회 접종이 권장됩니다.

[기타]

임신부가 풍진에 걸려 뱃속의 아기가 감염되면 사산 또는 유산되는 경우나 선천 풍진 증후군이라는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가 있어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이나

임신부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두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환자의 기침이나 재채기에 포함된 바이러스를 흡입함으로써 감염되는 '비말 감염' 혹은 수포나 점막의 배출물에 접촉함으로써 감염되는 '접촉 감염'이 있습니다. 발진이 나타나기 1일에서 2일 전부터 모든 수포가 가피화될 때까지 전염력이 있습니다.

[증상]

10일~21일간의 잠복기 후 강한 가려움증을 동반한 발진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두피와 얼굴에 나타난 발진은 몸통, 팔다리와 전신으로 퍼지며, 잇달아 새로운 발진이 출현합니다.

수두 발진은 흥반(붉은 종기)에서 구진(약간 뾰족하고 부풀어 있는 피진), 수포(물집), 가피(딱지)로 변화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38℃ 전후의 발열이나 권태감이 2~3일 지속될 수 있지만 증상은 비교적 가벼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방법]

유효한 예방법은 백신 접종으로 정기 접종 대상입니다.

생후 12개월에서 36개월 사이에 2회 접종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로타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발생하는 급성 위장염입니다.

주요 감염 경로는 감염자의 대변에 포함된 바이러스가 손을 통해 입에 들어감으로써 감염되는 대변-구강 감염(경구 감염)입니다.

[증상]

2~4일의 잠복기 후 심한 설사, 구토, 복통,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처음 감염되었을 때는 증상이 강하게 나타나므로 특히 영유아의 경우 탈수가 심해지는 등 입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방법]

유효한 예방법은 백신 접종으로 정기 접종 대상입니다.

입으로 먹는 백신으로 백신 종류에 따라 접종 횟수와 접종 간격이 다릅니다.

●유행성 이하선염(볼거리)

메프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어린이집 등에서 집단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어린이에게 많이 나타나며, 3~6세 소아에게 많은 감염병이지만 다른 연령에서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한 번 감염되면 평생 면역이 획득되는데, 그중에는 성인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유행성

이하선염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상]

2~3주 정도의 잠복기 후 귀 밑에 있는 이하선(타액을 만드는 조직)에 염증이 생기므로 해당 부위의 부종이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양쪽이 붓는 경우가 많지만 한쪽만 붓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방법]

유효한 예방법은 백신 접종입니다.
1세와 초등학교 입학 전, 2회 접종이 권장됩니다.

● 인플루엔자(독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병입니다.
일반적인 급성 상기도 감염(감기)에 비해 전신 증상이 강하게 나타나기 쉬운 점이 특징입니다.
환자의 기침이나 재채기에 포함된 바이러스를 흡입함으로써 감염되는 '비말 감염'이 주요 감염 경로이지만, 바이러스가 묻은 손으로 입이나 코를 만지는 것에 의한 '접촉 감염'도 있습니다.

[증상]

1~3일의 잠복기 동안 38℃ 이상의 발열, 두통, 기침, 인후통, 콧물, 근육통, 관절통이 나타납니다.
구토나 설사 등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며, 어린이나 면역이 저하된 분 등은 중증화되어 폐렴이나 뇌염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예방법]

자주 손을 씻고 실내 환기를 하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마스크나 손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가리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백신을 접종하면 인플루엔자(독감)에 절대 걸리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발병 예방과 중증화 예방에는 일정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